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양육자

2001 / 페이지 수: 3

92년 처음 온누리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어림잡아도 50명은 족히 넘는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한 김혜경권사.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다.

김 권사는 82년 성령을 체험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은 후 지금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역해 왔다.

이미 다른 곳에서 여러 훈련을 받은 터라 온누리교회에서 또 다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김 권사는 기꺼이 황재규 장로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첫 양육자로 전정자 집사를 만났다.

처음 전정자 집사를 만나기 전에 김 권사는 기도하기를 “신앙에 갈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일대일 연결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2팀이었다. 마침 한 팀의 부부가 사정이 있어서 한주정도 미루자는 제의를 해왔다. 그런데 의외로 전정자 집사의 남편이 다가와서 “저희는 한 주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하십시오”라고 그 갈급함을 호소해왔다. 김 권사는 그때 양육자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양육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김 권사는 일대일을 하면서 꼭 지키는 원칙이 있다. 바로 하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양육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이다. 양육과정 중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라도 빨리 응답하신다. 양육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양육자와 함께 동반자도 세워진다.

위암수술 후 가발 쓰고 일대일

전정자 집사는 젊어서 위암수술을 받았다. 암이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도 의사가 찾아내지 못해 5년을 키워 말기 상태가 되었다.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아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서 가발을 쓰고 다닐 때였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욱 그리웠으나보다. 전정자 집사는 가발을 쓴 채로 한주도 미룰 수 없다며 한사코 김혜경 권사를 붙잡아 일대일 양육을 받기 시작했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던 그들 부부는 일대일 교재에 나온 모든 공부가 새롭고 즐겁기만 했다. 병이 있어서 집에만 있었던 전 집사는 우울증 증세가 있었으나 이 증세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일대일 교재 중 ‘기도’부분을 할 때였다.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가르침을 받고 보니 확연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배운 대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다. 지금까지 예배나 봉사만 해왔던 전 집사로서는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것이다.

“큐티와 일대일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 집사는 힘주어 말한다. 지금은 집에 있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밖으로 다닌다. 위암수술을 받고 건강해졌지만 다시 자궁암으로 또 한 번 수술을 받았다. 이제는 삶의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남은 생을 헌신하고 살기로 했다.

전 집사에게 김 권사는 양육선생이 분명했다. 교재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차근차근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도 좋았다. 양육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성전 계단에 앉아서 양육을 받곤 했는데 기도를 할 때는 내려오는 사람들의 발길에 수도 없이 많이 채여도 그래도 좋았다.

“진국이죠”

사람들마다 다양한 일대일 방법이 있겠지만 교재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나 기도로 후원하는 김 권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동반자가 양육자 되는 것 기쁨이죠

성격도 비슷하고 조용조용히 말씀을 가르쳤던 김 권사에게 배운 대로 전집사도 가르친다. 지금까지 전 집사에게도 34명가량의 제자들이 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그 동반자들이 다시 양육자가 되어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해진다.

96년 오임숙 집사를 만나서 양육을 할 때도 그랬다. 나이가 같아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에 대한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관계가 깊어졌다.

전 집사는 무엇보다 ‘구원의 확산’을 확실히 해준다. 씨앗이 심기지 않은 땅에 물을 많이 뿌려본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큐티를 가장 강조한다. 큐티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홀로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양육이 끝났는데도 큐티가 확실치 않으면 연장해서 하기도 한다.

이렇게 무엇이든 확실히 하는 전 집사에게서 오 집사는 도전을 받았다. 일대일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이 없어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깨우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다. 그런 오 집사에게 전 집사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가꾸게 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전 집사였기 때문에 삶을 소중히 보내려는 그 모습이 항상 진지했기 때문이었다.

고신측 교회에서 자라난 오 집사에게 일대일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색채와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는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오집사가 만난 동반자는 사별한 지 7년째 된 자매였다. 하나님 외에는 마음 붙일 곳 없는 순실 자매와 함께 일대일 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보았다.

양육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순실 집사는 3년 전 교회에 등록할 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일대일 양육자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았다. 자신의 삶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마침 양육자를 만나고 보니 같은 고향에서 자라고 이것저것을 말하면 웬만한 것은 다 아는 그런 양육자였다. 금방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친연 니같이 여겨졌다. 모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오 집사에게 말하고 싶어지곤 했다.

마침 너무나도 곤고했던 이 집사는 다음에 만날 그날이 너무도 기다려졌다. 놀이방을 하면서 살던 이 집사의 집으로 오임숙 집사가 찾아오면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양육을 받곤 했다.

이순실 집사는 이제 사별한지 10년이 되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이혼하고 사별, 독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하는 뉴라이프에서 섬긴다.

이 팀에서 섬기면서 이순실 집사도 양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뉴라이프에 찾아온 한경철 형

제.

원칙대로라면 이성 간에 일대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양육을 받게 되면 꼭 이순실 집사에게 받겠노라는 한경철 형제의 말에 이순실 집사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라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다가 이 형제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그도 사별하지 10년이 되었고 자녀가 있었다.

이순실 집사는 양육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자매에게서 배우는 양육이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의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다.

양육을 받는 동안 한경철 형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갔다. 묘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이순실 집사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서로 사별한 처지였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많고 동감하는 것도 많았던 모양이다. 가까운 미래에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될 모양이다. 이 집사는 일대일 원칙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자신과 같은 일이 뉴라이프 안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일대일을 하면서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변하고 새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양육자들을 통해 동반자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너무도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간다.

*** 출처 : 온누리신문**